

K리그 올스타전 무산 위기

당초 8월 한·중 올스타전 계획
월드컵 예선서 같은 조에 결렬
베트남에 리브를…일정이 문제

2016시즌 K리그 올스타전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복수의 K리그 관계자는 13일 “올해 올스타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리그와의 교류가 보류되면서 마땅한 대체 카드를 찾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전북현대 전직 스카우트가 심판들에게 돈을 건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무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고 귀띔했다.

당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중국 슈퍼리그와 8월초 한·중 올스타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지난 연말부터 슈퍼리그 측과 꾸준히 교감을 나눈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단 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개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왔다. 9월부터 시작되는 2018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은 9월 1일 1차전(한국 홈경기)부터 격돌한다. 한국축구에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축구협회가 양국 프로축구연맹의 올스타전 개최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슈퍼리그 측에서 “올해는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다.

다급해진 프로축구연맹은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렸다. 베트남 V리그에 올스타전 공동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K리그 경기들이 베트남 국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올해 초에는 베트남 최고의 영건 쩌엥이 클래식(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는 등 양국의 축구교류가 지속되고 있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정이 문제가

됐다. 한국은 계획대로 정규리그나 FA컵 스케줄이 없는 8월 6일을 희망한 반면 베트남은 11월을 원했다. 결국 베트남과의 올스타전 개최 협상도 결렬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다른 동남아 국가를 섭외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베트남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일단 보류한 상태다. 다만 한·중 교류나 베트남과의 긍정적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K리그 올스타전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K리그는 2008년부터 2년간 일본 J리그와 올스타전을 진행하다 타이틀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한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현재 ▲2016~2017시즌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유럽·중동파를 초청하는 형태 ▲K리그의 토종과 외국인선수들을 나눠 자선경기를 치르는 형태 등과 더불어 올스타전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남 맨 김영욱 “한 팬의 SNS 글이 나를 바꿨다”

사커 피플

“인원 적어 버스 대절 불가…큰 자구단 한명이 오더라도 팬 위해 뛰겠다”

‘인원이 적어 버스를 대절할 수 없다네요. ○○ 원정은 개별 이동해야 합니다.’

평범한 문장이 화와 달았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남 드래곤즈의 미드필더 김영욱(25)은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로 구단 게시판에 접속했다가 한 팬이 남긴 글을 우연히 접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했다.

전남은 어느 순간,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했다. 정규리그 이후 이어지는 스프링 라운드 상위리그(1~6위) 진입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광양전용구장을 찾는 이들은 차츰 줄어들고, 원정경기를 동행하는 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러 대의 대형버스를 대절해 팬들을 지방으로 실어 나르는 수도권 인기구단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워졌다.

12일 안방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클래식 13라운드 경기(0-0 무)가 끝난 뒤 만난 김영욱은 “(SNS 글은) 큰 충격이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밝혔다. 일종의 책임감이었다. 자신이 역할을 못하고,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해 팬층이 줄아겠다는 생각에서였다. “1명의 팬이 원정을 찾아오더라도 진심하게 뛰자”는 전남 노상대 감독의 따끔한 말도 뇌리를 스쳤다.

올 시즌 전남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3라운드까지 1승6무6패(승점 9)로 11위에 머물고 있다.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8)와의 격차도 크지 않다.

김영욱은 뺏속부터 ‘전남 맨’이다. 광양제철중~제철고를 거쳐 프로 1군에 진입한 전형적인 프랜차이즈다. 나이는 어려도 프로에 데뷔한지 7년이 흘렀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하고 아프다. 그는 “절실하다. 추락이 계속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 때 ‘나 홀로 원정’에 임한 의령의 한 팬이 남긴 글에 자극을 받았다.



광양제철중~제철고를 거쳐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한 김영욱은 데뷔 이후 7년간 오랜 부침을 겪었지만, 팬들을 향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 몫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시 뛰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희망의 조짐이 보인다. 꾸준히 미팅을 갖고 마음을 나누다보니 선수단에 끈끈함이 더해졌다. 전남은 비록 패했지만 지난달 21일 전북현대전을 기점으로, 29일 FC서울전(1-1 무)과 포항전을 치르며 패배의식도 털어냈다. 특히 포항전은 내용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부침이 심했던 김영욱도 더 이상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제 몫을 하며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노 감독도 “경

기 자세와 정신적 준비가 좋아졌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좀더 뛰고 기술적인 부분을 채웠으면 한다. 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영욱은 ““오늘 이기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섰다 지금에 달리 바라본다. ‘누구에게도 안일함을 보이지 말자’, ‘날 응원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눈치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생각을 먼저 한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광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독일 제롬 보아텡(17번)이 13일(한국시간)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와의 유로2016 조별리그 C조 1차전 도중 골라인에서 오른쪽 발로 공을 걸어내며 상대의 득점을 저지하고 있다. 독일이 2-0으로 이겼다. 릴(프랑스) | AP뉴시스

역시 전차군단! ‘V4’ 향해 진격

독일, 우크라이나 2-0 제압
폴란드에 득실차 앞선 조 1위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우승 후보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꺾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독일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우크라이나를 2-0으로 누르고 통산 4번째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을 실행해 나갔다. 폴란드와 나란히 1승을 챙긴 독일은 득실차(독일 +2·폴란드 +1)에서 앞서 조 1위를 마크했다.

독일은 전반 19분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의 프리킥을 슈코드란 무스타피(발렌시아)가 헤딩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확정짓는 썬기골을 터트렸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펼쳐진 또 다른 C조 경기에선 폴란드가 아르카디우스 밀리크(아약스 암스테르담)의 결승골에 힘입어 북아일랜드를 1-0으로 제압하고 7번의 시도 끝에 사상 첫 본선 승리를 거뒀다. 북아일랜드는 A매치 12경기 무패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 다른 우승후보 스페인이 속한 D조의 크로아티아는 12일 1차전에서 터키를 1-0으로 꺾었다. 전반 41분 루

유로2016 조별리그 경기 결과(한국시간) ※ () 안은 개최장소			
D조 (12일)			
	크로아티아	1 : 0	터키
(파리)			
C조 (13일)			
	폴란드	1 : 0	북아일랜드
(니스)			
	독일	2 : 0	우크라이나
(릴)			

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중거리 발리 슈팅으로 귀중한 결승골을 만들어 크로아티아에 첫 승을 안겼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소수의 홀리건 때문에…억울한 잉글랜드 팬

통신원 리포트

경찰, 유독 잉글랜드팬에 강경 대응
상대 팬들도 먼저 시비…경호 강화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12일(한국시간) 벌어진 잉글랜드-러시아의 유로2016 조별리그 B조 1차전 직후 장내 난동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는 잉글랜드 응원석으로 난입한 러시아 홀리건들에 의해 촉발됐다. 마르세유(프랑스) | AP뉴시스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조별리그 B조 잉글랜드-러시아전이 벌어진 12일(한국시간) 발생한 양국 홀리건들의 난동에 대해 유럽축구연맹(UEFA)이 양국 축구협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UEFA는 13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면 양국의 유로대회 출전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잉글랜드 축구팬들이라고 하면 홀리건이 떠오를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잉글랜드 극성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 전 며칠 동안 여러 매체가 보도한 사건과 뉴스를 보면 경기가 펼쳐진 마르세유에선 일찌감치 양국 팬들끼리 무장정 폭력을 휘두르거나 멸절한 가게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가 하면, 일부 취객들이 시비를 걸자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쓰기도 했다.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일부 홀리건들

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이나 상대 팬들이 유독 잉글랜드 팬들을 겨냥해 먼저 시비를 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잉글랜드대표팀에 발탁된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의 아내 리베카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오늘 경기 도중 최악의 경험을 했다. 경찰이 우리를 가두고 최루가스를 쏘며 동물처럼 대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 최악이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이었다”고 생생히 전하며 대다수 팬들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경기 후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많은 러시아 팬들이 잉글랜드 팬존으로 넘어와 ‘습격’하면서 겁에 질린 수많은 잉글랜드 팬들이 재빨리 도망가는 영상과 사진이 보도되자 잉글랜드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패널로 출연 중인 잉글랜드대표팀 수비수 출신 리오 퍼디낸드는 “이런 사태가 꼭 잉글랜드 팬들과 연관되는 것이 안타깝다. 소수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잉글랜드는 자국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경기부터 경찰력을 프랑스로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EFA도 15일 러시아-슬로바키아전과 16일 잉글랜드-웨일스전의 경호 강도를 한층 높하기로 결정했다. UEFA가 추가 징계를 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일단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다카하기, 황당한 옐로카드…번복은 없다

(FC서울)

바람 빠진 공 들어서 보여주다 경고



수원FC와 FC서울이 맞붙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3라운드 경기에서 혼치않은 일이 벌어졌다.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두 팀의 경기 도중 불에 바람이 빠졌다. 수원FC 진영에서 공격하던 서울 다카하기 요지로(사진)는 공을 들어 주심에게 보여줬다. 주심은 갑자기 불을 든 다카하기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심에게 바람 빠진 공의 상태를 확인시켜주려던 다카하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러나 옐로카드는 취소되지 않았고, 주심은 불을 건네받은 뒤 이를 교체했을 뿐이었다. 다카하기에게 옐로카드가 주어지지는 을바를 판정이었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연맹의 답변은 “주심의 옐로카드가 과했다”였다. 연맹 관계자는 “축구 규정에 보면 핸드볼로 옐로카드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상대의 공격 흐름 또는 득점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손으로 건드렸을 때, 심판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손을 활용했을 때 등이다. 다카하기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에 바람 빠진 것은 혼치않은 상황에서 심판에게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다카하기가 불

을 집어 들었는데 판정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다카하기가 받은 옐로카드는 취소될까. 연맹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다. 사후 징계 감면을 논의하는 대상은 ‘퇴장’과 관련된 사안뿐이다. 다카하기는 이날 옐로카드 한 장만 받았다. 연맹 관계자는 “다카하기에게 주어진 옐로카드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경기를 관장한 주심이 과한 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카하기는 수원FC전에서 시즌 3번째 옐로카드를 받았다. 연맹 규정에 따라 경고누적으로 15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경기 도중 불이 터졌더라도 손으로 잡지는 말았어야 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한국, AFC 랭킹 평가 3년 연속 1위

한국이 아시아축구연맹(AFC) 랭킹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최근 AFC가 발표한 회원국 랭킹에서 한국은 클럽 포인트 70점, 국가대표 포인트

26,294점을 받아 합계 96,294점으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92,938점), 3위 아랍에미리트(UAE·91,533점) 등을 크게 앞섰다. AFC는 총점 100점을 클럽 70점, 대표팀 30점으로 구분하는데 클

럽 포인트 만점은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4년 1위에 오른 뒤 줄곧 정상을 지켜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